

항공업, 여객 회복에도 실적 부진 환율 부담·원가 급등에 수익 악화

3분기 LCC 합산 적자 1700억대
환율 1460원대 비용 압박 심화
운임 회복 지연에 비용 부담 커져
기단 효율 저하로 실적 반등 지연

국내 항공업계가 여객 수요 회복에도 실적 개선에 실패하면서 또 한 번의 구조적 난관에 직면했다. 코로나19사태 초기의 '수요 붕괴'와 달리 운임 수익 하락과 정비 지연, 기단 효율 저하가 수익성을 압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은 일제히 악화되면서 제주항공은 매출 3883억원에도 영업손실 55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티웨이항공은 매출이 13.9% 늘었지만 영업손실이 955억 원에 달했고, 진에어도 22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매출 4조85억 원, 영업이익 376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39%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영업손실 1757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적자에 빠졌다.

항공사들의 적자행진은 코로나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당시에는 국제선 수요가 90% 이상 사라져 적자가 불가피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여객이 돌아온 상황에서 운임 정상화가 수익 회복을 막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항공 좌석 수는 2841만석으로 집계됐지만 탑승객 수는 2463만명으로 나타났다. 좌석당 여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공급 확대로 국제선 운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고, 항공사들은 모객 경쟁을 위해 가격 프로모션을 늘리면서 좌석당 수익은 정체되고 있다.정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비·운항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움직여 매출 증가가 곧바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또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를 비롯해 유류비, 정비·부품 조달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간 거래 증가 기준 연평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15.28원이다. 2021년 코로나 시기 연평균 환율이 1144.61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항공사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코로나 시기 항공사들은 비용 축소와 기단 재편, 그리고 화물 중심 전략을 폈다. 운항을 줄이며 정비·연료비를 절감했고, 인력 구조조정 대신 휴직·무급휴가 등으로 고정비를 최소화했다. 그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화물 물류 호황을 기회로 삼아 2022년 최대 실적을 거뒀고, LCC들은 비수익 노선 정리와 리스 조건 조정으로 현금 유출을 줄였다.

그러나 이 성공 모델은 현재 시장에

서는 더 이상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 수요는 정상화됐고, 항공기 리스료·정비비·부품비 등 기본 비용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기 정비 계획 재편과 노후 기재 퇴출, 기종별 역할 분리 등 기단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노선 중심의 재배치, 프리미엄 좌석 확대, 계절·수요 기반의 차등 운임 도입 등 운임 전략의 정교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단순히 운항을 늘리는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노선·기단·정비를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진 결합과 부품 조달 지연 같은 문제는 개별 항공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사·정부·항공사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 아마존과 와이파이 특허 라이선스 체결

표준기술 기반 글로벌 협상력 강화

LG전자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와이파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통신 표준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아마존과 와이파이 표준필수특허(SEPs) 사용권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아마존은 인공지능(AI) 스피커 알렉사, 스트리밍 기기 아마존 파이어 TV 스틱, 파이어 태블릿 등 와이파이 기술을 활용하는 기기에 LG전자의 와이파이 표준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와이파이 표준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LG전자는 아마존 외에도 와이파이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다수 글로벌 기업들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 중이다.

표준필수특허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핵심 특허로, 관련 기술이 산업 전반의 공통 기반이 되는 만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크다. 특정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

되면 해당 표준을 따르는 모든 기업이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통신, 와이파이, 방송, 코덱 등 주요 표준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톱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LG전자가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LG전자가 보유한 국내의 등록 특허는 9만7880건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표준특허에 해당한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세탁기, 냉장고 등 주력 제품에 적용된 혁신 특허 기술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LG전자 사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LG전자는 6G 이동통신, 차량-사물통신(V2X),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도 특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사업에서는 차량용 AR(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관련 선행 특허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청이 주관한 '2024 특허기술상'에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전자, AI기반 보안·로봇 기술 공개

‘테크 콘퍼런스’ 온라인 개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주요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테크 콘퍼런스 2025(STC2025)’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AI 에이전트 ▲로봇 AI ▲차세대 보안 ▲통신 등 혁신적인 선행 기술부터 상용화 기술까지 다양한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전경훈 사장은 “AI는 이미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일상과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는 ▲AI 기반 차세대 보안 혁신 ▲지능형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의 진화 ▲AI를 활용한 로봇 기술의 도약 ▲오픈소스 AI의 생태계 확장 등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4가지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또 리눅스 재단의 짐 젤린 의장이 최신 오픈소스 AI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기술 세션에서는 삼성전자 연구원 60여 명이 통신, 헬스케어, 보안, 스마트싱스(SmartThings)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한 최신 연구 성과 40여 건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과 악성 앱 AI 자동 탐지 ▲AI 기반 고전 영상 고화질 복원 ▲30분 만에 갤럭시 XR 콘텐츠 제작하기 ▲온디바이스(On-Device) 오디오 지우개(Audio Eraser) ▲무선 통신 기지국 AI 품질 최적화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PV5, 34년 만에 아시아 첫 ‘올해의 밴’

세계 상용차 박람회 ‘솔루트랜스’
평가단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 수상
포드·폭스바겐 제치고 수상 영예

기아의 최초 목적 기반 차량(PBV) 첫 모델인 PV5가 글로벌 전기 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인 ‘솔루트랜스’에서 PV5가 ‘2026 세계 올해의 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 올해의 밴은 유럽 각국의 글로벌 경용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 IVOTY가 주관해 선정하며 1992년부터 34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해당 연도에 출시된 경용차 차량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인 가치를 지닌 차를 선정해 시상한다.

2026 세계 올해의 밴은 올해 12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개시한 경용차 차량 중 최종 후보에 오른 7개 차량을 평가단이 직접 시승을 통해 ▲기술 혁신성 ▲효율



기아 더 기아 PV5.

성 ▲안전성 ▲환경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PV5는 포드 E-트랜짓 커리어, 포드 E-트랜짓, 포드 트랜짓 커넥트 PHEV, 폭스바겐 크래FTER, 폭스바겐 트랜스포터/E-트랜스포터, 파라이즌 SV 등 최종 후보에 오른 글로벌 경용차 시장의

강력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2026 세계 올해의 밴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세계 올해의 밴 34년 역사상 한국 브랜드 최초이자 아시아 전기 경용차로도 처음이다. 심사 위원단 26명 전원 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오랫동안 EV 혁신을 이끌고자 노력해왔으며, PV5는 이러한 의지를 상용차 영역까지 확장한 모델”이라며 “특히 PV5는 다품종 유연 생산이 가능한 ‘컨베이어·셀’ 결합 생산 시스템과 같은 제조 혁신까지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며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깊다”고 밝혔다.

이어 “PV5가 데뷔와 동시에 ‘세계 올해의 밴’에 선정된 것은 기아가 글로벌 경용차 시장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어갈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지오센트릭, 에탄으로 NCC 경쟁력 강화

SK가스와 손잡고 원료 다변화 추진

SK지오센트릭은 지난 19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 확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향후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NCC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에서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며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 가스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중국·인도·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SK가스는 기존 LPG·LNG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탄 저장·하역이 가능한 터미널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을 포함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